

뉴스 & 뉴스

제3기 '불교 귀능학교' 개강

조계종총무원 사회부와 전국귀능운동본부, 실상사, 영화사, 우리는선우, 대불연총동맹회는 공동으로 2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매주 토·일요일 오후 3~7시)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3기 불교귀능학교를 연다.

총지중 홈페이지 개설

총지중(총리위원장 총지화)이 9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ongji.or.kr)를 개설했다.

종단사와 종조인 원정 대성사의 생정 설립 전문, 역대 총령의 사친과 약력, 종단 산하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밀교경전과 불서 목록도 수록했다.

청주BBS 시장에 도공스님

청주불교방송은 14일 제12차 운영위원회(위원장 해광·법주사 주지)를 열어 현안 사주 도공스님을 제3대 시장으로 추대했다. 이번 시장추대는 집안사각 각원스님이 개인적 사유로 지난해 9월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취임식은 21일 거행된다.

불교인권위 10주년특위 구성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12일 서울안국동 인권법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출소장기수의 집 마련, 불교인권 세미나 개최 등을 기념사업으로 전개키로 했다.

'12·23 구속자 석방' 농성

중앙승가대 학인 도경스님 등 4명의 스님은 13일 12·23 조계사 공권력 투입 규탄 및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조계종사대 구속자석방대책위 사무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조계사 운영권 넘겨달라'

12·23 조계사 사태로 결성된 조계사신도대책위원회가 조계사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조계사 발전에 동참 기여한 신도자치회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도대책위원회는 매일 오후 1시 '조계사'를 자치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조계사 일대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정도회기 서울 서초3동에 세운 정도회관 전경.

평택시 불교예술품이로 「조계사」를 만든다

회원들 자재운반등 봉사 자청 입주 '한창'...3월14일 개원법회

교계 시행단체가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백여평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던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회관 건립 공사에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정도회(지도법사 법륜스님) 회원들인 정도행자들이 공사현장에 나선 것은 지난 해 8월 16일, 회관 기공식이 열린 날부터다. 이때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12월 8일까지 하루 평균 20~30여명의 정도행자들이 스스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정도행자에게 주어진 일은 속칭 '데모' 역할. 시멘트와 목재 같은 건자재 운반, 현장 청소, 기능공 심부름 등 잡부 그 자체였다.

공사 현장에서 잡부의 일당은 6~7만원선. 공사 기간을 여러달이나 1백50여일, 대략 1억여원의 공사비를 절약한 셈이다.

당시 업자들은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정도행자들을 가리켜 '개미군단'으로 불렀다.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서 일했던 도우미들도 있었다. 부산, 대구, 문경, 홍제법당 소속 회원 1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1백50여일 동안 매일 15시간의 노력봉사를 했다.

설성봉씨(44·부산정토법당)는 "노력봉사라니 가담치 않습니다. 새벽에 기상해 108배를 하고 울려하는 마음으로 공사장을 찾았죠. 신령 그 자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1층 법당, 2층 사무실, 3층 숙소, 지하1층에 식당이 들어선 정도회관에는 불교환경교육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원광 정토, JTS 등이 최근 셋방살이를 마감하고 입주했다. 정도회는 3월 14일 개인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02)5878-992.

오종욱 기자(gobaouu@buddhopia.com)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25일 오후7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직지사(주지 녹원)는 18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후8시 설법전에서 법사를 초청, 성도절 대법회,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24일부터 정진법회와 탐들이 만등점등식을 각각 개최한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공사 중단

공사비 지급 늦어져

교계 최대 교육불사인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신축공사가 10일부터 잠정 중단돼 6월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대학본부, 강의동, 수행관, 교수회관 등 전체공정의 65%에 달하는 공사진척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사태로 지난해 말까지 중단에서 지급기로 했던 69억원

의 대금을 공사업체인 풍림산업에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승가대 법인사무처장 해관님은 "늦어도 2월 중순 전에 지급해야만 공기에 완공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종단의 지원만이 원만한 성취하는 길"이라고 조계종 총무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opia.com)



금강산관광객 신계사터 예불

여명의 불자들이 4일 이례적으로 신계사터를 찾아 예불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금강산새해 첫 관광에 참여한 조국경화불교협회(회장 법타) 회원들이 현대측에 요청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법타스님 태경스님(제사사 주지) 지산스님(은해사 영천포교당 주지)을 비롯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동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장기표 신문정책연구원장, 장지현 진각복지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평불법은 금강산관광 코스에 신계사터가 포함되도록 현대측과 협의키로 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금강산관광 길에 나선 3백여명의 불자들이 4일 이례적으로 신계사터를 찾아 예불을 봉행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출소자 2백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도소 인권실태 설문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36.5%가 교도소내 종교생활이 부자유스런 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매우 자유스럽다'는 4.4%, '대체로 자유롭다'는 26.1%, 무응답은 33%로 나타났다.

'교도소내 종교활동 부자유' 36.5%

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 200명 설문

교도소내 종교생활은 여전히 부자유스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출소자 2백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도소 인권실태 설문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36.5%가 교도소내 종교생활이 부자유스런 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매우 자유스럽다'는 4.4%, '대체로 자유롭다'는 26.1%, 무응답은 33%로 나타났다.

교도소 당국에 의한 종교활동의 보장과 권장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40.9%), '좋은 영향을 준다'(10.4%), 무응답(42.2%) 등으로 응답했다. 이중 일부 응답자들은 "교도관 다수가 개신교인이고 이들에 의한 선교가 많으며 특정종교가 장려된다"고 답변했다.

'교도소내에 종교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48.2%), 아니다(30.3%), 무응답(21.3%) 순으로 답했으며, '신자 대표가 있느냐'는 문항에는 있었다(44.8%), 모른다(26.5%), 없었다(15.7%) 등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출소자들은 교도소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특정종교의 강요와 차별금지(9명) △미결수 및 공안사범의 종교활동 보장(8명) △종교방 및 종교사당의 설치(2명)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말 교도소 과밀현상 해소와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앞으로 2~3년간 검토작업을 거쳐 종교단체 및 비영리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설립방향을 밝힌 바 있어 따르면 2001년경 종교교도소가 문을 열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일불교 포교원 건립추진

효창공원 인근 주민 반대

일본불교인 세계창가학회(SGI) 한국불교회(이사장 박재일)가 김구·윤봉길선생 등 항일독립운동가 7명의 묘역이 있는 서울용산구 효창공원 부근에 포교원 건립을 또다시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과2가동 주민들과 숙명여대 교직원 및 학생, 백범기념사업회 등은 12일 '민족성역에 왜색 종교시설 건립 추진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운동에 나섰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일불교 포교원 건립추진

효창공원 인근 주민 반대

일본불교인 세계창가학회(SGI) 한국불교회(이사장 박재일)가 김구·윤봉길선생 등 항일독립운동가 7명의 묘역이 있는 서울용산구 효창공원 부근에 포교원 건립을 또다시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과2가동 주민들과 숙명여대 교직원 및 학생, 백범기념사업회 등은 12일 '민족성역에 왜색 종교시설 건립 추진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운동에 나섰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성도절을 이웃과 함께”

사াম련 중심 자비의 등 밝히기-장학금전달 등 다양

TMF시대=이웃과 함께하는 시대. '교계가 계속되는 불황속에 맞는 성도절을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의 사암연합회와 사암은 성도절인 25일(음력 12월 8일)을 전후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밝히기, 결식아동돕기 자비의 쌀모으기, 장학금전달식 등을 갖는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는 25일 무각사에서 성도절 봉축대법회 및 문화예술회를 펼친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광주불교승보회와 광주불교장학회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이웃과

함께 하는 점등식, 광주불교 어린이 예술단 공연, 극단 '반야' 공연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 등이 열린다.

대구사암연합회(회장 원명)는 25일 오후2시 능인고등학교 강당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와 함께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자비의 쌀모으기 행사를 실시한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도절 기념법회를 비롯 노숙자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5천여개의 등불을 밝힌다. 도선사(주지 동광)는 '1등 밝히기'로 모금된 보시금을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영주시 6개 중·고교 종교편향교육 '물의를'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영광중학교 등 6개 중·고등학교에서 종교편향교육을 강요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영광중학교와 영광여자중학교를 비롯 동산 중·고등학교 등 6개 학교는 1주일에 두시간씩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해 종교교육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광여자중학교에서는 지난 해 영어시간에 기독교 강해를 내용으로 하는 비디오편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영어시간인데 기도원에서 안수기도 받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선생님이 보라고 해서 받는데 가슴이 떨렸

다"고 격분했다.

영주시 지역 기독교 종교교육 강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0년부터 종교교육 강요에 대해 지역 스님들은 교육청에 중지를 요청해 해당 학교장들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았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영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택적으로 실시되도록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개학과 동시에 이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근 기자

청각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습

광림사, 송파구청에 차량·강사 지원

청각장애인의 자동차운전 면허 취득이 서울송파구 광림사(주지 해성스님) 연복복지학원의 노력으로 본격화됐다.

5년 전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법회 활동을 펼치는 광림사는 지난 9월부터 법회에 참석하던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전이론교습을 실시한데 이어, 8일 송파구 탄천운전연습장에 수화강사와 교습용 특수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이 운전교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성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해 사회에 보탬이 일

꾼이 될 수 있도록 불자들이 뒷받침 해주는데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 운전교습장에는 현재 필기시험을 통과한 5명의 청각장애인들이 기능시험을 위한 교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운전교육은 이론교육이 매주 일요일 광림사 법당에서 열린다. 이론시험에 통과하면 송파구 가락동에 마련된 연습장에서 월~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토요일에는 4시간씩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02)423-8150 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2543(1999) academic year new student recruitment at Gyeongju National University. It lists the number of students, application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dmissions office.

Advertisement for the 98th issue of the magazine 'Modern Buddhism'. It provides details about the magazine's content, subscription rates, and where to purchase it.